

## 수출입화물포장시스템 '클립락' 개발

### 재사용 가능 및 공간절약 효과 높아



이 경 봉  
이건산업(주) 대표이사

중량물포장의 대명사인 목재포장은 그동안, 나무판을 못으로 박아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한번 사용하면 폐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 합판을 철심 클립으로 연결해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호는 물론 포장 비용까지 개선한 수출입 화물포장시스템 '클립락' 이 이건산업(주)에 의해 시판, 해외 물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입화물포장시스템인 '클립락' 은 일회용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입니다.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회수할 때 공간 및 물류비용이 4분의 3정도 적게 들며, 사용 후에도 포장재 처리 및 폐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건산업(주) 이경봉 사장은 "클립락은 나무(합판)와 클립으로 제작되어 A/S 비용이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운송하고자 하는 제품의 크기나 형태에 상관없이 군수품, 자동차, 액체, 의류 장비 등에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72년 창립이후 이건산업(주)은 컨테이너 합판, 건축용 거푸집 합판, 내외장용 합판, 선박용 특수합판 등의 합판제품과 목조주택 자재, 조경자재 등의 환경친화적 건자재와 그린파렛트, 포장 박스 등의 물류제품 등을 생산하며 발전해 왔다.

세계 그린라운드(GREEN ROUND)추세에 따라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중요성을 깨닫고 폐기물 문제과 포장방법의 개선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히는 이경봉 사장. 그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주요국가에서는 상품의 생산자 및 판매상이 해당 포장재를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

을 보며, 회수 재사용이 가능하고 분해 조립이 가능한 차세대 포장제품으로 일대혁신을 일으킬 '클립락'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견산업(주)은 클립락 제품을 개발하여 유럽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 특허를 출원시킨 네덜란드의 CLI사와 공동개발, 판매에 착수하게 됐다.

클립락은 일회용 포장재가 아닌 회수 재사용이 가능한 시스템 포장재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경봉 사장은 "최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고객 설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품의 기능이나 효용성 보다는 오로지 저렴한 가격만을 고집하는 고객들에게 클립락을 어필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클립락을 고객에게 소개할 때는 작은 모형제품을 가지고 직접 고객을 방문, 조립분해 방법을 소개한다는 이경봉 사장.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모대기업 구매 부장에게 클립락을 소개 할때였습니다. 클립락을 조립 분해할 때 나는 "딱"하는 소리가 넓은 사무실에 계속 울려 퍼져 모든 사무실 직원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결국 회사 사장이 무슨 소리 인지를 관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날, 직접 클립락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기회를 얻어 대형 주문으로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클립락은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 누구라도 3분안에 조립 및 해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과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세계적인 쓰레기처리 및 매립지의 문제가 많은 현재, 세계의 우수한 기업의 주요포장 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봉 사장은 "유사제품의 출현에 따라 개발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어려운 제품개발에 대한 보호기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클립락과 같은 재활용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국내 포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육성과 제품 개발을 장려하도록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정립돼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무 목재 자원은 전량 해외자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는 이경봉 사장.

그는 환경친화적 상품이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친환경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환경경영을 선포, "환경친화적 상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핵심사업을 재구성했다.

이경봉 사장의 친환경 경영을 토대로 이견산업(주)이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전문업체로 성장하여 국제 경쟁력있는 포장 제품을 지속 발굴해 국내 포장시스템 및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